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1호 [루게 제26185호] 주제 107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평양을 출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환송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방북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1월 6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어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쿠에스타 베라씨녀사를 따듯이 환송하시였다.

이날 평양국제비행장과 시내거리들은 조선쿠바 친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고 떠나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바래주는 뜨거운 환송분위기가 흘러넘쳤다.

속소로부터 평양국제비행장까지의 수십리 열도에는 수많은 수도시민들이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 흔들며 뜨거운 마음으로 가장 친근하고 귀중한 벗들을 바래워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쿠에스타 베라씨녀사를 바래워주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와 기다리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박태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위무상인 리용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위원회의 위원장인 김능오동지, 내각부총리 리봉남동지, 쿠바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마철수동지가 형제적쿠바인민의 귀빈들을 환송하기 위해 나와있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수길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상 육군대장 노광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나와있었다.

또한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헤수스 델 로스 안헬레스 아이세 쓰플롱고동지와 대사관 성원들이 나와있었다.

쿠바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을 태운 차행렬이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순간, 환영곡이 울리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의 함성이 하늘땅을 뒤덮었다.



1 면 에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께서는 차에서 내린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와 리스 쿠에스타 베라씨녀사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서로의 마음속에 두터이 쌓인 정을 더듬으시며 인사를 나누시었다.

이어 비행장에서는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를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쿠바공화국 국가가 추악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와 함께 조선인민군 영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와 리스 쿠에스타 베라씨녀사에게 녀성근로자들이 향기로운 꽃다발을 드리었다.

두 나라 지도자내외분들께서는 각각 쿠바공화국 대표단 성원들과 환송나온 우리측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박3일간의 결지 않은 체류기간이었지만 뜨겁고 진실한 정을 맺고 더욱 가까워진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와 작별의 순간을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며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언제나 쿠바인민과 당신결에는 자신과 우리 당과 인민이 함께 있을것이라고 따듯이

말씀하시며 귀로의 안녕을 축원하시었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는 최상의 특전과 극진한 환대를 받은 이번 평양방문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해준 존경하는 김정운동지와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심장에 안고 간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께서는 사회주의기치를 함께 추켜 든 이 손을 절대 놓지 말고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곳곳이 전진시켜나갈것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었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와 리스 쿠에스타 베라씨녀사는 수도시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비행기에 올랐다.

쿠바공화국대표단을 태운 비행기는 오전 11시 20분 평양국제비행장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형제적쿠바인민에게 보내는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담아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을 태운 비행기를 향하여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었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쿠바사이에 맺어진 형제적이며 친동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위업을 위해 투쟁하는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전투적단결을 굳건히 다져나가는데서 역사적분수령으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